

† <미사 및 본당모임 안내>

이번주 독서: 황지혜 레지나, 홍유리 율리아
 다음주 독서: 김주형 엠마누엘, 전지나 베아트리체
 이번주 복사: 신승원 로이
 다음주 복사: 강선우 마르가리따, 우상인 사비나
 이번주 미사해설: 조은경 수산나, 조성익 토마스모어
 다음주 미사해설: 조성익 토마스모어, 김태진 하상바오로
 반 주: 조은영 베다, 조은경 수산나
 황지혜 레지나, 홍유리 율리아
 회 계: 김주형 엠마누엘, 유현영 사도요한
 친교실 정리: 제 2 구역

+ 지난주 우리의 정성

봉헌금: \$ 330

합 계: \$ 330

주 일 미 사	매주 토요일 오후 5시
고 백 성 사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30분부터 미사 전까지.
성 가 대 연 습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지하 성가 연습실] 성가대장: 석우경 안드레아, 고미현 다미아나
친교 /간식 모임	매주 미사 후 [성당 사무실]

† <공동체 모임 알림판>

금요 성서모임	격주 금요일 7시 사제관
성교회 금요 기도모임	매주 금요일 오후 1시 (장소는 성당 게시판 참조)

† 오늘의 묵상

하루에도 수많은 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인기를 끄는 책은 대부분 건강과 관련이 있거나 세상에서 성공하는 방법을 알려 주는 것들입니다. 그 책들에서 주장하는 건강과 성공의 비결은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스스로 다루는 것입니다. 그러나 책 몇 권 읽고 자신의 생각을 그렇게 쉽게 바꾸고 다룰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생각에는 자신의 가치관, 고정 관념, 사고방식, 자존심, 본성적 욕구 등이 걸려 있어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이전 생각들을 비우고 새로운 생각이 자리 잡아야 비로소 바뀔 수 있습니다.

사실 생각을 비우는 것은 수련으로도 어렵습니다. 생각을 버린 빈자리에 금방 다른 생각들이 들어차서 우리를 점령하고 말기 때문입니다. ‘오만 가지 생각을 하며 산다.’는 말이 있듯이, 실제로 우리는 하루에 오만 가지 넘게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꼭 찬 생각을 비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새로운 생각을 불어넣어서 불필요한 생각을 몰아내는 것이 더 현명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생각을 불어넣어야 하는지요? 우리 신앙인에게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전례력에 따라 그날의 독서와 복음이 정해져 있습니다. 비록 매일 미사를 할 수 없는 사람이거나 하더라도 저녁에 자기 전이나 아침에 일어나서 그날의 말씀을 읽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 생활을 하면서 온갖 근심과 잡념이 들 때, 그날 읽은 말씀을 떠올리고 거듭거듭 생각하면 그 말씀이 우리 안의 오만 가지 생각을 밀어낼 것입니다. 생각이 말씀으로 단순해지며 세상 것에 매이지 않고 훨씬 자유로워집니다. 오늘 복음에서 큰아들은 아버지가 포도밭에 가서 일을 하라고 일렸을 때 “싫습니다.” 하고 거절합니다. 그러나 큰아들 마음속에는 아버지의 말씀이 계속 맴돌았을 것입니다. 결국 그는 ‘생각이 바뀌어’ 아버지의 뜻을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말씀을 늘 기억하고 되새기고 살면 번잡한 세상에서 올바른 생각이 자리 잡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생각을 바꾸어’ 주님께서 바라시는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매디슨 천주교회

본당신부: 박상훈 알렉산더 (224) 217-0512

사목회장: 심윤필 베르나르도 (512) 698-6379

<http://club.catholic.or.kr/thekccm>

성당 Facebook 그룹: 매디슨 한인천주교회

http://www.facebook.com/home.php?sk=group_210193849001633

[연중 제 26 주일]

2011 년 9 월 24 일

<제 1 독서> 예제키엘 예언서, 18, 25-28

<제 2 독서> 필리피서, 2, 1-11

화답송

- ◎ 주님, 당신의 자비 기억하소서.
- 주님, 당신의 길을 알려 주시고, 당신의 행로를 가르쳐 주소서. 저를 가르치시어 당신 진리로 이끄소서. 당신은 제 구원의 하느님, 날마다 당신께 바라나이다. ◎
- 주님, 예로부터 베풀어 오신 당신의 자비와 자애 기억하소서. 제 젊은 날의 죄악과 잘못된 잊어 주소서. 주님, 당신의 자애에 따라, 당신의 어지심으로 저를 기억하소서. ◎
- 주님은 어질고 바르시니, 죄인들에게도 길을 가르치신다. 가련한 이 올바른 길 걷게 하시고, 가난한 이 당신 길 알게 하신다. ◎

복 음 환호송

-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 ◎ 알렐루야.

복 음

마태오복음, 21, 28-32
 그때에 예수님께서 수석 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애야, 너 오늘 포도밭에 가서 일하여라.’ 하고 일렸다. 그는 ‘싫습니다.’ 하고 대답하였지만, 나중에 생각을 바꾸어 일하려 갔다. 아버지는 또 다른 아들에게 가서 같은 말을 하였다. 그는 ‘가겠습니다, 아버지!’ 하고 대답하였지만 가지는 않았다. 이 둘 가운데 누가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였느냐?” 그들이 “맏아들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사실 요한이 너희에게 와서 의로운 길을 가르칠 때, 너희는 그를 믿지 않았지만 세리와 창녀들은 그를 믿었다. 너희는 그것을 보고도 생각을 바꾸지 않고 끝내 그를 믿지 않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영성체송] 주님, 당신 종에게 하신 말씀 기억하소서. 저는 그 말씀에 희망을 두었나이다. 당신 말씀 고통 속에서도 위로가 되나이다.

[오늘의 성가] 시작: 1 봉헌: 62 성체: 156 파견: 59



생명의 말씀

하느님 나라에 먼저 들어가는 사람들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살인사건의 범인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감옥에 있는 동안 종교로 귀의해 세례를 받고, 회개의 삶을 살다가 죽기 전에는 장기기증을 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형집행이 끝난 후 그를 신앙으로 이끌어준 선교사에게 기자들이 질문했습니다. “그토록 무서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회개한다고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 선교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구원은 하느님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그는 자신이 세상에서 지은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려고 최대한 노력했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거기까지입니다.”

신학교에서 강의시간에 교수 신부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어떤 사람이 죽어서 천국에 갔는데, 천국에서 세 번 놀랐다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와! 내가 드디어 천국에 왔네!” 두 번째, “어떻게 저 사람도 천국에 와 있지?” 세 번째, “어? 천국에 꼭 있어야 할 사람이 없네?” 물론 우스갯소리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구원은 인간이 마음대로 판단할 수 없는 일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말씀은 충격적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서는 세리나 창녀들의 죄를 두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의인인 착하는 대사제들과 원로들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 당시의 대사제들과 원로들은 종교적으로는 물론 정치적인 지도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은 죄가 없다고,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면에 사람들의 천시와 냉대를 받던 세리나 창녀들은 늘 자신들의 죄를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세관장 자개오와 세리 마태오, 창녀 마리아 막달레나 같은 사람들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세속적으로 가난하고 보잘 것 없어 보여도 사랑을 증거하고 실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진정한 신앙인은 언제나 하느님 앞에 부족한 죄인임을 인정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나는 죄인들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고마운 말씀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서 다시 예수님께로 나아가길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진정한 회개는 부단히 자신을 버리고 예수님께로 다가가는 삶입니다. 또한 회개는 평생 끊임없이 계속되어야 하며,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도 이제 용기를 냅시다. 우리의 손과 발이 착하고 좋은 일을 하는데 더 부지런해져야 합니다. 우리의 입이 불만과 불평이 아닌 칭찬과 평화를 노래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의 삶일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하느님 나라에 먼저 들어가는 사람들입니까?

허영엽 마티아 신부

† 공지사항

- 오늘 미사 후에 사목회의가 있습니다.
- 건진 교리와 예비자 교리 첫 모임이 10월 1일 미사 후에 있습니다. 참여 희망하시는 분들은 신부님께 이메일 (sanghun.pak@gmail.com) 주세요.
- 내일 밀워키 성당 축복미사 같이 가실 분은 신부님이나 사목회장에게 말씀해 주세요.
- 지난 월요일에 최미라 자매님이, 그리고 화요일에는 정혜선 자매님이 건강한 아들을 출산하셨습니다. 모두 축하해 주세요.



카톨릭 교리

삼위일체(三位一體)

삼위일체(三位一體)란 한 분이신 하느님께서 세 위격으로 존재하신다는 것을 말한다. 삼위일체 하느님에 대한 가르침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통해 하느님 구원을 경험한 인간 체험에 바탕을 뒀으며, 오랜 신학적 성찰을 통해 믿을 교리로 선포됐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한 분이신 하느님으로 서로 단일하고 동등하며, 세 위격적 존재로서 서로 다른 역할과 활동을 통해 상호 구별된다. 일반적으로 성부께서는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시고, 성자께서는 계시와 구원 활동을 하시며, 성령께서는 인간 마음에 거하면서 성화, 거주, 내밀함의 활동을 하신다. 성부, 성자, 성령은 각각 자신의 활동을 담당하면서 동시에 다른 위격의 활동에도 참여한다.

성부는 어느 누구에게서도 파견 받지 않고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시며, 인간 구원을 위해 성자와 성령을 세상에 파견한 분이시다. 성자는 성부에게서 파견돼 인간으로 강생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며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분이시다. 성령은 성자의 부활과 승천 이후 성자를 통해 성부에게서 파견된 분이시다. 따라서 삼위일체 하느님을 호칭할 때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순위를 지켜야 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일체 하느님께서서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일치하신다. 삼위일체는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이뤄야 할 사랑의 단일성, 사랑으로 일치를 이뤄야 할 단일성을 말해주고 있다. 교회 공동체와 모든 그리스도인은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삼위일체 하느님의 상호 사랑과 일치로 나아가도록 도와줘야 한다.

삼위일체 하느님에 관한 교의는 인간 능력으로 온전히 깨달을 수도, 설명할 수도 없는 신비다. 따라서 교회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세 위격으로 존재하면서 한 분이신 하느님이 되는 삼위일체 신비를 신앙 안에서 받아들이고 믿고 고백하도록 가르친다.

그리스도인은 전례 예식을 비롯한 전 신앙생활을 통해 삼위일체 하느님께 대한 신앙을 고백한다.

△기도문 : 삼위일체 하느님께 대한 신앙 고백은 신앙 행위의 기본인 십자성호에서부터 영광송, 사도신경 등 모든 기도문에서 드러난다.

△성사 생활 : 삼위일체 하느님께 대한 신앙은 세례성사를 위시한 모든 성사 생활에서 표현된다.

△삼위일체 대축일 : 교회는 성령 강림 대축일 다음 주일에 삼위일체 대축일을 기념하며, 삼위일체 하느님의 인간 구원 활동에 감사와 찬미를 드린다.